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 기말고사
기간까지 약 40여 일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반드시 할 일은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대략 10여 개 교를 선정하여
미리 자기소개서를 준비한다면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시.

II. 6월 이후 가장 효과적인 과목별 학습전략

수시지원전략

내신 2-3등급 + 모의고사 3-4등급

해당 등급의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현재 성적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시 위주의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논술에 자신이 있다면 최저 등급을 포함한 논술전형에도 도전**해 볼 만 합니다. 영어를 80점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사실상 최저 등급을 통과하는 셈이기 때문에 논술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논술 100% 전형이 사실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니 각 대학의 입시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신 4-5등급 초반 + 모의고사 4-5등급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성적대가 바로 내신 4,5등급입니다. 이 등급대 학생들은 **7월 기말고사에서 내신 성적을 얼마나 높을 수 있느냐가 사실상 합/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학년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성적이 상향 곡선을 그린다면 대학은 해당 학생에게서 발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내신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등급은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포진해 있는 그룹이므로 학교 선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내신 5등급 중후반 ~ 6등급

내신 5등급 이하 특목고/자사고 및 특정 학군의 학생이라면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 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학생들은 **논술전형 및 정시전형 지원을 적절히 고려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4등급 이하인 학생이라면 수시에서는 적성전형 합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추가 축소되는 논술전형과 적성전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내신과 모의고사 등급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총 4가지의 지원 전략을 제안합니다.**

❖ **평준화 일반고 기준의 전략이므로 특목고, 자사고 및 일부 학군의 학생 전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렀다면 본격적으로 수시 원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최종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여 나에게 가장 알맞은 전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시 전형에 합격할 시 정시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 수시 합격률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수능 난이도의 변화로 인한 합격선 변동입니다.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지만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에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특히 논술이나 교과전형에서는 합격선을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 기말고사 기간까지 약 40여 일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반드시 할 일은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대략 10여 개 교를 선정하여 미리 자기소개서의 공통문항을 준비한다면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학이 분명하지 않다면 자기소개서 3번을 먼저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소서 3번은 지원 학과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서를 검토할 때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평가를 받아보길 권합니다.